

# 우리동네 분리배출 활성화 올해도 실현

### 광주시, 행정복지센터 중심 '분리배출 클래스' 자율 참여 진흥 1~5위 인센티브·표창... 선정된 센터 의견 공유 문제점 분석도

광주지역 주택 밀집지역의 골칫거리인 쓰레기 혼합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나선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지 내 분리배출함이 있어서 매우 정해진 요일에 입주자들이 쓰레기를 분리배출해 분리수거율이 높다. 반면 단독주택·원룸이 밀집된 주택가는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합 투기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시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72%에 달한다. 타 광역 지자체(평균 63%)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공동주택 재활용 실적에 반영한 것이다.

광주의 아파트 주거비율은 6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면 주택가의 분리수거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실질적 활동이 아닌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며 따라 실질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까지 광주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전체가 추진 대상이다. 다만 동 시책이 센터의 광중환 업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자율 참여로 진행된다.

1위부터 5위까지 행정동은 인센티브와 함께 시상 표창을 받는다. 1위는 400만원, 2위는 250만원, 3위는 150만원, 4·5위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5월과 10월 광주시와 지자체의 2차례 점검을 거쳐 12월 5개 센터를 선정한다.

12월에는 선정된 센터의 의견을 공유해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평가 항목은 운영·실천·협업 등 3개분야로 나뉘며 구체적으로는 12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센터별 여건이 상이해 점수 배정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원룸촌, 상가 등이 없는 도심 외곽의 경우 마을 내 분리배출함 설치 시 가산점을 반영한다.

센터가 오래돼 배출함 등이 설치 곤란하거나 상가 밀집지역으로 현장평가 점수가 낮게 배정되는 경우 분리배출 홍보 노력도 무인회수가 설치 등 센터 자체 노력도 부분도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동네 자원재생활동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협업 분야 점수 신설해 센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시책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사능 오염수, 우리 밥상은 안전할까?’ 지난 2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방사능 오염수, 우리의 밥상은 안전할까?’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렸다.

# “영광 한빛원전 수명연장 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하라”

### 광주·전남 환경단체, 한수원 규탄 고창군 공람 결정...합평군만 보류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26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에 따르면 고창군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평가서 초안) 공람을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

단체는 “그동안 한수원에 대해 평가서 초안에 대

해 보완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창군이 주민 공람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지자체는 이제 합평군만 남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동안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에 최신기술기준과 중대사고를 고려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을 요구해 왔지만 한수원은 보완요청에 대해 본질적인 대답은 회피한 채, 내부 규정·지침 등을 들먹이며 동문서답 식 회신으로 일관했다”면서 “한수원의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태도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느

끼는 분노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철회를 요구하며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합평군에 대해 지지의 의견을 내놨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 연합 사무처장은 “합평군은 주변 지자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민 안전을 제일로 삼아 마지막까지 최선의 선택을 다해달라”면서 “한수원은 영타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스마트폰으로 건강상태 확인하세요

### 북구,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29일까지 100명 선착순

광주시 북구가 29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유도하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에게 유용하다는 것이 북구의 설명이다.

올해 사업은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 위험 요인이 1개 이상 있는 주민을 우선으로 총 1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건강 위험 요인을 줄이고 저염 선호, 영양표시 이용, 아침 식사 실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걷기 실천 등 5개 건강행태 유도를 목표로 추진된다.

대상자 선정은 사전 건강검진 후 4월 중에 결정

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건강 상담, 다양한 건강 정보 제공, 신체활동 실천 미션 부여 등 모바일 앱 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가 24주간 지원된다.

또 사업 참여자는 24주간의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최종 건강검진과 종합 상담을 통해 건강 관리 계획 목표 달성 여부가 평가되고 맞춤형 건강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자문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북구에 거주하거나 북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19~64세의 성인 중 스마트폰이 있는 주민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민은 북구 보건소에 전화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북구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는 총 250명이 참여하여 영양, 운동, 건강 등 영역별 집중 상담 4407회, 건강 콘텐트 20회 등을 제공받아 건강행태 1개 이상 개선을 56.1%, 건강 위험 요인 1개 이상 감소를 60.1%를 달성한 바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동구,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접종

### 기초생활수급자 선착순 500명

광주시 동구는 다음달 1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총 500명으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각 동별로 방문하기 쉬운 13개 소로 지정했다.

위탁의료기관은 대한연합내과의원, C.C.C이카페의원, 광주대항외과의원, 감성의원, 그린가정의학과의원, 이동훈이비인후과의원, 서울연합의원, 허경내과의원, 도담소아청소년과의원, 심이비인후과의원, 오내과의원, 바른이비인후과의원, 필요한가정의학과의원 등으로 광주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대상포진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고령층에서 특히 발생빈도가 높다”면서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휠체어 이용 장애인 가족과 함께 노고단 체험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 10월까지 숙박형·당일형 운영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올해부터 ‘구름 바다에서 펼쳐지는 노고단 힐링’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고단대피소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공간에서 진행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숙박형 8회, 당일형 6회로 운영된다.

숙박형은 1박 2일 과정으로 매회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가족 1팀(최대 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

며, 당일형은 시각장애인 5명(가족포함 10명), 청각장애인 5명(가족포함 10명), 지체장애인 5명(가족포함 10명)을 대상으로 각 2회씩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지리산국립공원 정상부인 노고단에서 탐방로 트레킹, 자연 해설, 낙조 감상, 별자리 관찰, 일출 보기 등 다양한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탐방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2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소장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탐방에 제약이 있었던 노고단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탐방프로그램을 통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